

With You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유엔(UN)기구입니다

2025 봄호

통권 56호



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

We Stay and Deliver
우리는 현장을 지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긴급구호 활동

03 편지함

후원자님들의 덕담으로 여는 2025년

04 커버스토리

새로운 위기, 장기화되는 실형

We Stay and Deliver

유엔난민기구의 긴급구호 활동

10 WithYou가 만난 사람

캐런 와이팅 Karen Whiting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보호국장 인터뷰

12 유엔난민기구는 지금

유엔난민기구의 첫 팝업스토어

‘사막 여우와 아이’ 팝업스토어 스케치

14 WithYou, 함께하는 사람들

후원자 [새해 덕담 한마디] 이벤트

16 소중한 후원이 만든 변화

20 돌보기 : 유엔난민기구를 들여다 보다

22 유엔난민기구 소식

24 고맙습니다

WithYou 소식지 독자 참여 이벤트

표지 사진



수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수단
렌크Renk는 수단 분쟁으로 인한 위기의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수단 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렌크에서 현장을
지키며 생명을 구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NHCR/Reason Moses Runyanga

편지함

후원자님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후원자 예우팀에서 소식을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후원자님께서는 그간 안녕히 지내셨는지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난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후원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매년 새해가 찾아올 때마다 후원자님께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릴지 고민합니다.

깊은 고민 끝에 이번에는 후원자님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직접 담아보고자,

[난민 가족에게 새해 덕담 보내기]라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난민 가족을 향한

응원과 희망을 가득 담은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이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이기를
언제나, 간절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소O 후원자님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 있는, 그냥
그런 보통의 날들이
오길 기원합니다.”

박O기 후원자님

“이곳에서 저의
작은 힘이 그곳의 당신께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박O웅 후원자님

※ 후원자님들의 더 많은 덕담은
14~15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이 난민 가족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는 2025년에도 전 세계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행일 2025년 3월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인 김새려

제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민간파트너십팀 디자인 더디앤씨

후원 방법 후원 계좌 : 국민은행 407537-01-004288(예금주 : 유엔난민기구 혹은 UNHCR)

입금 후 확인 전화(02-773-7272)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위기, 장기화되는 실형 We Stay and Deliver 유엔난민기구의 긴급구호 활동

전 세계 강제 실형 수치는 12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반갑지 않은 신기록 경신 뒤에는 새로이 발생한 긴급구호 상황과
장기화하는 강제 실형 상황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위기 상황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긴급구호 상황

유엔난민기구는 26건의 신규 긴급구호 상황을 포함해 2024년 25개국에서 43건의 긴급구호 상황을 지원했습니다. 신규 발생 중 7건은 유엔난민기구 긴급구호 분류 체계에 따라 최고 등급으로 분류되는 레벨 3(L3) 비상사태로, 2023년의 4건보다 증가했습니다. L3 비상사태에는 차드, 이집트, 에티오피아, 남수단, 리비아, 우간다 등 이웃 국가로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수단 분쟁과 가자^{Gaza} 분쟁으로 인한 레바논 및 시리아 대규모 난민 사태가 포함되었습니다. 기후 관련 긴급구호도 급증해 2023년에 비해 4배 증가한 9건이 선언되어 기후 변화와 난민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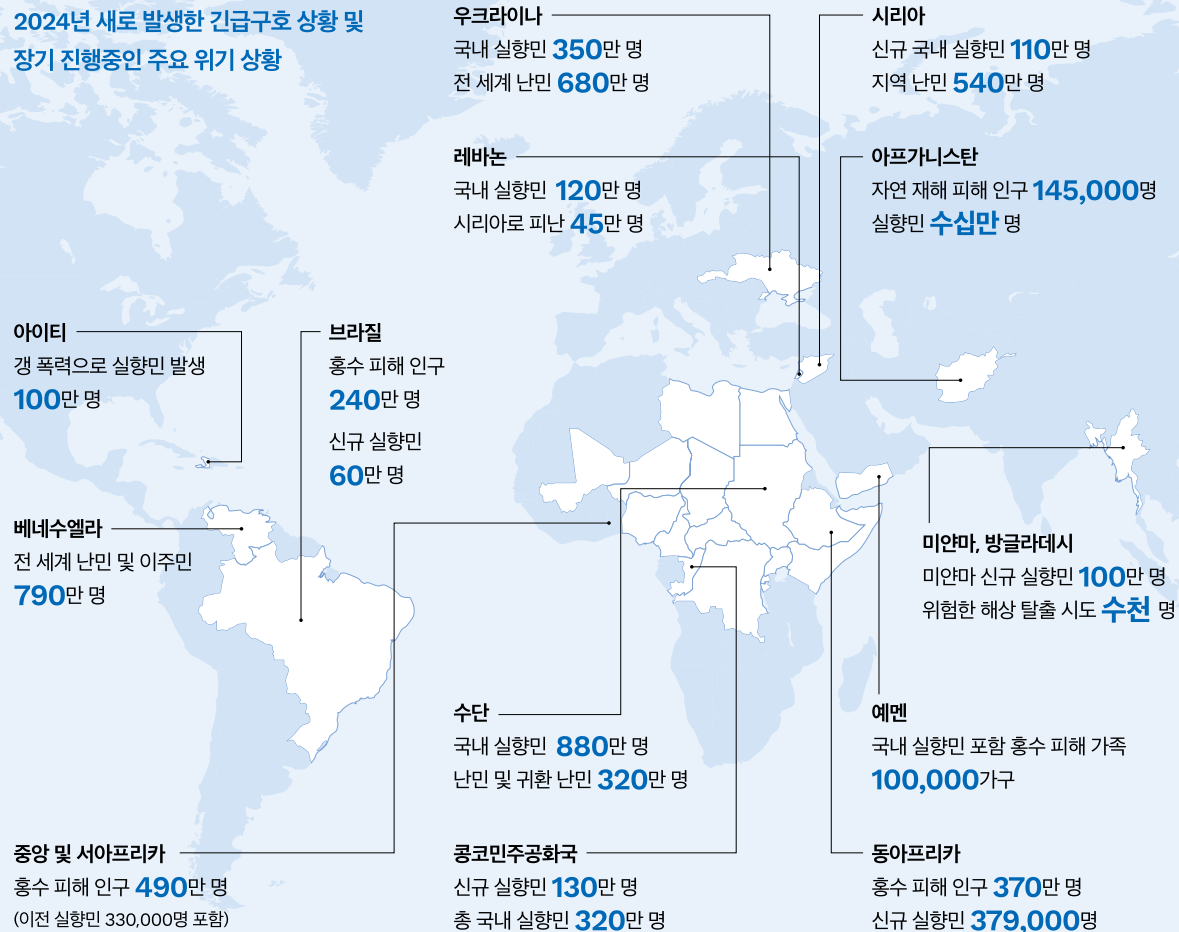


We Stay and Deliver, 우리는 현장을 지킵니다

2024년 유엔난민기구 긴급구호 활동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7곳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물류 창고에 긴급구호 물품을 배치하고 긴급구호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에 가장 필요한 구호 물품을 전달합니다.

2024년 새로 발생한 긴급구호 상황 및 장기 진행중인 주요 위기 상황



유엔난민기구 긴급구호 활동



전 세계 물류 창고에서 전달된
긴급구호 물품의 가치
4,580만 달러



항공 **267톤**



육로 **4,890톤**



해상 **4,534톤**

2024년 전 세계 물류 창고에서 전달한 긴급구호 물품



담요
140만 장



양동이
11만 개



수면 매트
120만 장



주방용품 세트
293,000개



방수포
698,000개



다목적 물통
581,000개



모기장
529,000개



텐트
27,000개



태양광 램프
251,000개



방수 비닐시트
3,000장



570만 명 이상 지원

긴급구호에서 자립으로

마하무드 알나지 테아와 Mahmoud Alnaji Teawa 씨와 그의 가족은 수단 하르툼 Khartoum 인근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피해 남수단으로 피난했습니다. 국경을 넘은 직후 유엔난민기구에 가족용 텐트, 주방 세트, 담요, 수면 매트 등 기본 생필품을 제공받은 가족은 이후 아주웅 톡 Ajuong Thok 난민촌으로 이동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하무드 씨는 난민촌 안에 작은 상점을 열었고 휴대전화 충전 서비스와 식료품을 판매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침대도 사고, 가족의 생활도 나아졌어요. 이제 바닥에서 자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는 유엔난민기구에서 받는 구호 식품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일하며 자립하고 싶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긴급구호 지원뿐만 아니라, 난민이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 및 현지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난민촌 내 중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마하무드 씨의 자녀들은 졸업 후 고등 교육을 받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긴급구호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지원조차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피소, 식수, 위생, 의료 서비스 등 필수적인 필요가 우선시되다 보니, 난민들의 장기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기금 모금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마하무드 씨 가족과 같은 난민 가족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단 난민이자 소상공인인 마하무드 엘나지 테아와(Mahamoud Elnaji Teawa)씨와 그의 가족이 남수단 난민촌에서 아내, 막내 아이와 함께 임시 거주지에서 있습니다.
©UNHCR/Reason Moses Runyanga



©UNHCR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는 유연한 기금, 미지정 기탁

2025년에도 전 세계 강제 실항민 수치는 또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고, 긴급구호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지정 기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지정 기탁은 무엇인가요?

미지정 기탁은 후원자가 특정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유엔난민기구에 제공하는 후원금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금은 유엔난민기구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이나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기금의 중요성

유엔난민기구의 ‘가장 필요한 곳에’ 기금은 바로 이러한 미지정 기탁을 의미합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긴급한 상황이나 자원이 부족한 프로그램

에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전 세계 난민과 강제 실항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로 보내주시는

‘가장 필요한 곳에’ 기금의 힘

매년 국내 민간 영역 후원금의 약 76%가 이상이 ‘가장 필요한 곳에’ 즉, 미지정 기탁으로 조성됩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기금은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빠르게 사용될 수 있는 기금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난민 가족이 생존을 넘어 자립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곳에’ 기금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도움 보내기



캐런 와이팅 Karen Whiting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보호국장 인터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과 강제 실항민은 안전, 생존,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들 곁에서 묵묵히 보호 활동을 이어가며 전 세계 난민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캐런 와이팅 Karen Whiting 유엔난민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보호국장을 만나 유엔난민기구의 보호 활동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Q 유엔난민기구의 '보호' 활동은 어떤 활동을 의미하나요?

A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난민 신청자, 무국적자, 국내 실항민, 귀환민 등 강제로 집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들이 안전을 보장받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파트너들과 함께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Q 유엔난민기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보호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A 유엔난민기구의 핵심 보호 활동 중 하나는 난민 등록입니다. 정부가 난민을 등록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유엔난민기구는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난민들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세계식량계획(WFP)과 같은 기관이 식량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난민의 기술과 역량을 파악해 취업 프로그램과 연결하고, 법적 신분을 보장하여 체포나 구금을 방지하고 필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유엔난민기구의 보호 활동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유엔난민기구의 보호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난민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자신의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교육, 의료, 취업, 가족과의 재결합 같은 기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난민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귀환이 가능해졌을 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Q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난민들이 직면한 가장 큰 보호 과제는 무엇인가요?

A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난민 위기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무국적자 규모가 세계 최대 수준이고, 무국적자는 법적 신분이 없어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게 어렵습니다. 미얀마와 같은 장기 분쟁도 있어 난민들이 위험한 바닷길을 선택하고, 때로는 착취와 학대를 겪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1951년 난민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많아 난민 신청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는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출생 등록 시스템을 강화해 무국적 아동들이 학교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유엔난민기구도 정부와 협력해 난민 신청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장기적인 난민 위기 상황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Q 난민에 대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난민에 대해 더 이해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첫 번째는 난민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난민은 전쟁, 박해, 폭력으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는 것이지, 원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난민은 상황이 나아지고 안전해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큰 오해는 난민이 원조에 의존하기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난민들은 스스로 일하고 자립하여 자신과 가족의 삶을 책임지길 원합니다. 제가 요르단 자타리 난민촌에서 근무했을 때, 시리아 난민이 도착하자 난민촌 내 경제가 활성화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후 요르단 정부가 시리아 난민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자, 많은 난민이 적극적으로 일자를 찾으려고 했고요. 이는 삶을 재건하려는 난민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Q 많은 독자와 후원자들이 난민을 돕고 싶어 합니다. 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정기, 비정기적 후원 외에도, 난민 포용 정책에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 속한 지역 사회 내에서 난민의 정착을 돕는 것, 가까운 사람에게 난민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난민들의 내일을 밝히는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WithYou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A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난민들이 희망을 되찾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의도에 손뜨개 사막 여우가 떴다!

유엔난민기구의 첫 팝업스토어

'사막 여우와 아이' 팝업스토어 스케치



사막 여우 키링
받으러 가기

"안녕! 나는 사막 여우야"

나는 어린 왕자의 친구 사막여우처럼
전 세계의 아이들을 위해 탄생했어.

나를 만나러 와줘서 고마워!
나와 함께 여정을 떠나볼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지난 2025년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여의도 IFC몰에서 첫 팝업스토어 '사막 여우와 아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팝업스토어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사막 여우와 아이' 팝업스토어 현장을 소개합니다!



소설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사막여우는 거친 환경에서도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동물로 용기와 보호, 행운을 상징합니다. 이런 사막여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유엔난민기구의 사막 여우 키링은 시리아 난민이 한국 후원자들을 위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제작한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하루에 단 두 개만 만들어집니다.

강인한 용기와 생명력을 가진 사막여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사막 여우 키링은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전 세계 난민 아동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난민 보호와 지원의 상징이자 소중한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아이템입니다.



난민 가족에게

2025년 새해 덕담 한마디 이벤트

지난 1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난민 가족에게 새해 덕담 한마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후원자님들께서 보내주신 다채로운 덕담에는,
새해가 난민 가족에게 선물처럼 다가오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따뜻한 마음은 난민 가족이 희망의 봄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반드시 나아질 것이며,
반드시 좋아질 것이고,
반드시 잘될 것입니다.

김○정 후원자님

어둠 속에도 빛은
존재하듯,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송○현 후원자님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
새해에는 지금의 어려움이
봄눈 녹듯 끝나길
소망합니다.

황○진 후원자님

아침이 오면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길이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김○정 후원자님

2025년에는 1억 명 이상의
강제 실항민들이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 따뜻한 미소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영 후원자님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류○성 후원자님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이번 겨울이 춥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의 짐을 나눠서 지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존재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차○ 후원자님

푸른 밤이 힘차게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듯,
꽃꽂하게 이겨낸다면
분명 좋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손○자 후원자님

나의 소박한 사랑이
당신에게 큰 희망으로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김○진 후원자님

삶에는 행복과 불행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행복을 깊이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힘내세요.

박○희 후원자님

여러분의 후원이 전 세계 곳곳에 가져온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로즈 세네마(Rose Senema)가 정착지 내 인근 수도꼭지에서 물을 길고 있습니다
©UNHCR/Frank Walusimbi

남수단 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로즈는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으로 우간다 비디비디(Bibidi) 난민 정착지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넷의 엄마인 그녀는 지난 4년 동안 아이들이 마실 물을 길기 위해 먼 길을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로즈를 비롯한 많은 난민이 이 과정에서 폭력 등 다양한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17년부터 우간다 난민촌 식수 위생 및 수로 개선을 지원해 왔습니다. 2023년 기준, 우간다 내 12개의 난민 정착지에서 85%의 난민 및 강제 실향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민 정착지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수도망도 개선 및 증축하여 국가 수도망에 연결해 식수 위생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간다 내 난민 상황에 대해 지속 가능한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난민과 지역 사회 공동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르는 차르바흐 피로자(Charbagh Firoza) 마을의 낡은 흙집에서 5명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지진으로 집이 크게 망가졌지만, 다른 집으로 이사 갈 형편이 되지 않았던 시르와 가족들은 폭우가 쏟아지면 집이 무너질까 두려워합니다.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인 아프간 커뮤니티 및 건강 재건 기구(ACHRO) 덕분에 시르와 가족들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집은 더 따뜻할 거고, 우리는 그 집에서 더 행복해질 거예요.” 시르는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프간 난민에 대한 지원을 다년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유엔난민기구는 아프가니스탄 헤라트 지역에서 278채의 새로운 집을 완공했습니다. 대부분은 2023년 10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들입니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 걱정을 덜었어요.

곧 안전한 집을 갖게 될 것이고 행복해질 일만 남았거든요.”

시르 아흐마드 Shir Ahmad



“천둥소리가 들릴 때마다 집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때마다 지진이 났던 그때가 떠올라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아내 시마 Sima



시르 아흐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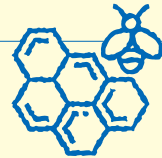
©UNHCR/Caroline Gluck

이즈마일



“이 프로젝트 덕분에 우리 가족은 이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꿀을 판매하면서 얻은 수익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즈마일 Ismail



파키스탄에서 난민으로 지내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즈마일 Ismail은 아프가니스탄 카불 Kabul에서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을 받아 양봉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실항민 생활을 했던 그는 심각한 교통사고로 2년 동안 병상에 누워 지냈습니다. 그동안 어린 두 아들은 제빵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엔난민기구의 양봉 프로젝트를 통해 5개의 벌통을 지원받은 이즈마일은 현재 22kg의 꿀을 수확하며 가족의 중요한 생계 수단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이즈마일과 가족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받아주고, 도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나탈리아 Natalia

©UNHCR/Mark Macdonald



나탈리아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출산 휴가 중이었던 나탈리아 Natalia는 안전을 찾아 우크라이나 오데사 Odesa를 떠나 몰도바에 왔습니다. 나탈리아와 두 아이들은 현재 유엔난민기구에서 지원하는 난민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몰도바에서 나탈리아는 안전함을 느끼지만, 난민으로서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어요. 너무 슬프고 집이 그리지만, 이제는 그저 돌아갈 날을 기다리기보다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죠.”

레스니



베네수엘라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레스니 Lessny는 납치 사건을 겪은 후, 딸과 반려동물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찾아 3년 전 에콰도르로 건너왔습니다. 에콰도르 과야킬 Guayaquil에 정착한 레스니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에콰도르인 지인의 도움으로 커피 공급업체를 알게 됐고, 다시 커피를 판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후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으로 창업 교육을 받으며 SNS 홍보와 사업 운영에 대해 배웠고, 레스니의 작은 커피 사업은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제 에콰도르는 레스니와 가족에게 새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과야킬이 이제 제 집이에요. 고향에 있을 때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져요”

레스니 Lessny

정기 후원 외에 난민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궁금합니다.

*후원자님 질문

A 전 세계 난민 중에는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많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장인들이 자신만의 기술을 통해 생계를 일구고 자립해 나가는 동시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MADE51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지난 2018년 설립한 프로그램이자 브랜드명이기도 한 MADE51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난민이 직접 만든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수공예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MADE51, 이름의 의미?

'MADE'라는 단어는 창작 정신과 난민들이 손수 만드는 공예품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Market Access, Design, and Empowerment'(시장 접근, 디자인, 역량 강화)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숫자 51은 난민의 권리와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한 핵심 법적 문서이자, 유엔난민기구 활동의 근거가 되는 '1951년 난민협약'을 상징합니다.



유엔난민기구에 궁금한 모든 것
돌보기에 물어봐주세요!

질문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소정의 선물 을 보내드립니다.



MADE51에서는 패션 아이템, 생활용품, 액세서리, 인테리어 용품 등 다양한 수공예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난민들이 전통적인 기술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제품 하나하나에는 난민 장인의 문화적 배경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MADE51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난민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난민이 자신의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삶의 의미와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MADE51의 다양한 제품은 한국으로의 배송도 가능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찾고 계셨다면 지금, MADE51 제품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난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소비 동참하기

유엔난민기구 소식



글로벌 소식 더보기
(영문)

한국

유엔난민기구, 한국국제협력단 직원 대상 <난민 보호 A to Z> 세미나 진행

2월 24일, 유엔난민기구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코이카 직원 대상 세미나 <난민 보호 A to Z>를 진행했습니다. 캐런 와이팅 Karen Whiting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보호국장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동 행사는,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보호 활동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강제 실항 현황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와이팅 보호국장은 “긴급 상황에서 제공되는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개발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난민 보호는 글로벌 난민 콤팩트를 기반, 전 사회적 접근을 통해 난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한국의 개발협력 주체인 코이카의 지원이 전 세계 난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꾸려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UNHCR

외교부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선발 및 파견 준비

2월 14일, 2024년 외교부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로 선발, 유엔난민기구 방글라데시 사무소와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로 파견 예정인 두 명의 JPO가 한국대표부를 방문하여 김새려 대표와 환담했습니다.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는 국제기구 진출 선배로서 후배 JPO를 격려하고 경험담을 나누었습니다. 한편, 유엔난민기구는 1996년부터 JPO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 보호, 정책 개발, 정부 관계, 파트너십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유엔난민기구에 입부한 많은 한국 인재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및 중남미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UNHCR

글로벌

필리포 그란디 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 지원 촉구

지난 1월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전쟁이 남긴 참혹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약 1,06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대규모 공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3년째 계속되는 이 비극으로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삶의 터전과 일자리, 학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전쟁 첫날부터 우크라이나 현장을 지키며 긴급구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임시 거처 키트, 생필품을 살 수 있는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UNHCR/Oleksii Barkov

WithYou 소식지 설문 조사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더 나은 소식지 내용을 위해 후원자님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벤트 기간 내 설문 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사막 여우굿즈를 보내드립니다.

참여 기간 2025년 4월 23일(수)

참여 방법 우측 QR코드 스캔 후 링크로 들어가서
이벤트 참여하기



설문 참여하기

다른 그림 찾기



참여방법

- ① 두 사진에서 **다른 6곳**을 모두 찾아주세요.
- ② 사진을 찍어주세요.
- ③ 사진을 unhcr@unhcr.or.kr로 보내주세요.

* 추첨을 통해서 '사막 여우 굿즈'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이메일로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벤트 기간 2025년 4월 23일(수)까지